



봉은사 강주 초청 법회,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 “살면서 계획한 대로 이뤄진 적 있습니까?”

6월 26일 봉은사 범양루에서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실상사 약수암)의 법회가 진행됐다. 스님은 현대사회 불교가 제시해야 할 바름[正]의 윤리적 실천은 보시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이상언 기자

## 고통의 연속, 인생은 본래 그러한 것

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까요. 살면서 계획한 대로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본래 어떤 것도 계획된 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죠? 그래서 인생을 고(苦)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라만상이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의 삶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일은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며, 인간의 존재가 고(苦)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적 존재인 다른 사람들이 한 대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업장이 있는 다른 생명과 충분히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적 인간의 실천 도리로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바름[正]'을 이야기 합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담론의 뿌리에는 항상 '고'와 '연기' '바름'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반야, 중관, 유식, 여래장, 밀교, 천대, 화엄, 선, 정토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내용들은 초기불교 당시 제기되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시간, 공간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 현실 진단과 불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부처님 열반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지역적 특성도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하는 대안 모색이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는 출가자 뿐 아니라 재가자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자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지금 이 시대를 '자본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능력도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시대니까요.

자본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만한 불교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연기적 실천과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모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본의 시대에 바름의 실천은 '분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승사상가들은 바름의 올바른 실천을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라고 했죠. 불교적 실천은 자본의 극대화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적 실천은 보시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연기적 실천 과제는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의 실천을 위해서 이 시대에 걸맞는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모임은 곧 윤리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시대 윤리는 연기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윤리와 정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상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강제적인 요소들까지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2600년 역사와 광활한 지역에서 이미 연기적 실천과 바름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과거의 것 중 적당한 것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

합니다. 인생이 고이고 연기성이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이상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찾아가는 데에는 바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류에 편승하면 갈등없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이 따르고 10-30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善)은 착하고 악(惡)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착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내 삶 속에서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찾아낸다 고 한다면 각자 다릅니다. 연기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자로서 이 시대 불교의 이상성, 이상적인 불교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마땅합니다.

## 자본주의... '분배' 바탕한 바름 실천 필요 분배는 바름으로, 바름은 윤리로 이어져야 세상은 변한다. 변화를 염두에 두라

화를 염두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성을 망각한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불교와 역사는 흡사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 속 대처 가르침을 얻습니다. 늘 변화를 염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역사성을 망각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자는 물론 스님들 사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다고 해도 근본 이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라며 역사와 변화를 염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본 이치는 변하지 않

## 깨달음은 변화... 열반의 종교

불교에 대한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무아·무상·연기·반야·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무아·무상·연기·중도에 대한 자각을 통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 점도 모자람 없이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보다는 '열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한 자각을 바탕으로 고의 문제가 해소된 상태, 해소 되어가는 변화와 가치를 중시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열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만(圓滿)의 반대는 치우침입니다. 원만하다·치우치다는 말의 기준도 바름을 온전하게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관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원만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우침이 됩니다.

사람들은 원만보다는 치우침에서 꿀맛 같은 달콤함을 더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꿀맛 같은 치우침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무미건조하더라도 원만함을 실천하고자 해야 합니다.

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불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각한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한은 바름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초기대승 운동가들은 신구의(身口意) 삼업 청정수행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했습니다. 이후 열반에 이르고자하는 보살의 수행인 바라밀을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지혜와 원력 복덕을 원만히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상적이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으로 모든 지혜와 복덕, 원력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으로 비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도를 닦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 업과 연기적 실천

연기적 실천을 왜 해야 할까요.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불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업은 윤회의 근본원인이고, 출발점입니다. 업은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업이 있으면 반드시 윤회를 합니다.

업이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한다면 업이 나[我, 아트만]를 형성하는 실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 윤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람됨이라는 것 속에는 업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외 없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습관, 성품 모든 것들에 업이 차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인격이고 인격이 바탕이 돼 또 다른 나의 삶을 만들고,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 냅니다. 행위나 사고나 습관 모든 것들이 잘못돼 바름의 실천을 염두 하지 못하고 하는 행위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내 인격의 연기적 실천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을 때, 나의 인격이 연기적 인격, 불교적 인격이 됩니다.

연기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원만함을 버리고 치우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끝없이 왜곡됩니다.

업에 대해서 개인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지금 현재의 연기적 삶을 보다 적극적 윤리적 삶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고, 연기적 삶으로 향상시켜가는 가능성입니다.

연기성은 관계성입니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동체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연기성에 기본을 둔 이상적인 관계를 동체대비(同體大悲)라고 합니다. 분배라는 것도 연기성 바탕으로 바라보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것의 소멸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적 실천의 기본 내용입니다.

현대 자본의 사회에서 불교의 적극적인 연기적 실천을 고려한다면 보시로 이어집니다.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보시가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드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기반방석

용인지역만  
10년  
수련  
\$giban

일반  
방석  
\$giban

일반  
방석  
\$giban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 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부태불교인문서